

한국 최대의 자전거 메이커

삼천리자전거



삼천리자전거는 1944년에 창업하여 자전거 문화를 심고 가꾸는데 노력하여 왔으며, 오늘날 한국 최대의 자전거 메이커로 성장 발전해 왔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으며 레저산업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용 있는 회사, 노력하는 회사, 꿈을 가진 회사를 지향하는 삼천리자전거는 고객의 기대를 앞서가는 최상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의왕공장 전경

사용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제품

삼천리자전거에서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MTB, 로드바이크, 하이브리드, 접이식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부터 전문 레저용 자전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유아용 제품(유모차형 자전거)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여전한 자전거 인프라의 부족

본격적인 자전거 활성화 붐이 일면서 자전거 도로나 보관소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라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 많다. 뿐만 아니라 헬멧착용이나 안전한 라이딩에 대한 의식이 미숙한 상태라 이용자와 업계에서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자전거 구매 시 주의해야

자전거 소비 증가에 따른 판매경쟁으로, 시중에 저렴한 가격만을 무기로 안전과 품질을 외면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안전검사 등 형식승인을 갖추지 않은 제품은 사후 서비스는 물론 사용자의 안전마저 담보할 수 없어,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반조립 상태로 배송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제품과는 달리 자전거는 전문 판매자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에서는 생산 공장에서부터 대리점까지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서





투톤 메탈 컬러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모멘텀]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가장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또, 정기적인 제품안전교육과 안내물 배포를 통해, 판매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품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제품사고가 발생했을 시, 해당 제품의 겉으로 드러나는 품질 문제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용 환경 등, 잠재적인 문제까지 제품개발자와 생산기술자들이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철저한 원인규명은 물론 설계, 제조 단계에서 품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확인되면,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품 제조사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개선을 실천하고 있다.

당사에 접수되는 사례 외에도 블로그 사용자 후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 결함과 사용자 불편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 요원 회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사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수용하고 있다.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의 등장, 전기자전거

최근 자전거 업계의 새로운 화두는 단연 '전기자전거'이다.

전기자전거는 최근 몇 년 동안 기술 진보와 제품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업계 및 관련기관에서 저탄소시대의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대중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반면에는 관련정책 미비와 규제 등 불확실 요인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현실을 잘 반영하고, 녹색교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MTB [칼라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MTB [칼라스]



다기능 세발자전거[모디]

삼천리자전거,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 본격 드라이브

2000년대 초 국내 전기자전거는 배터리의 효율성과 무거운 무게, 투박한 디자인 등으로 찾는 이가 적고 사용 연령도 노년층이 주 고객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에 무게 또한 가벼워졌고 배터리 용량도 늘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최근 2014년형 전기자전거 ‘팬텀’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며 본격적인 전기자전거 시장 공략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형 ‘팬텀’시리즈는 도심 주행에 적합한 ‘시티’와 비포장도로와 험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MTB형의 ‘XC’,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한 ‘미니’ 등 총 3가지로, 안전성과 실용성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전기자전거 중 유일하게 ‘스로틀 ON/OFF 버튼’을 채용해 가속 레버 조작 실수로 인한 급출발을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페달을 움직이지 않을 경우 가속레버를 조작해도 가속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파워 어시스트 모드에서 동력이 부드럽게 전달되는 급가속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보다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해졌다.

‘팬텀’시리즈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36V 8.7Ah 배터리를 채용, 배터리 사용시간이 20%향상되어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 주행을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모델을 변경해 주행거리, 속도, 시간, 배터리 잔량 등의 표시와 반응속도가 빨라졌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최근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니즈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자전거 1위 기업인 삼천리자전거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번 ‘팬텀’시리즈도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천리자전거 2014년형 ‘팬텀CITY’



삼천리자전거 2014년형 ‘팬텀XC’



삼천리자전거 2014년형 ‘팬텀MINI’